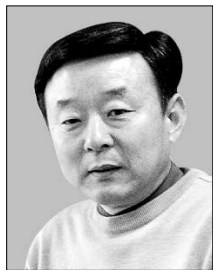


십 년 전 독일 여행 중 벌어진 일이다. 독일 땅에 발 디딘 첫날이다. 밤 열시 경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다. 오랜 비행 뒤꿈치라 속소에 짐과 소지품을 던져놓고 방 열쇠를 프런트에 맡기고 호텔 밖으로 나왔다.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후 낮선 현지 사람들과 수작이나 부러울 삼산으로 근처 호프집으로 갔다. 열한시 1분전, 주점 입장시간 마감직전이다. 열한시 정각이면 대통령이라도 입장불가다. 퇴장은 자유롭다. 아슬아슬하게 입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새벽 두 시에 불쾌한 얼굴로 호텔에 돌아왔다.

프런트에 가서 열쇠를 달라고 하니 확인증을 보여 달란다. 그게 뭔데? 확인증이고 여권이고 소지품을 모두 방에 던져놓고 나왔다. 나는 조금 전 열시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고 투숙한 한국인이다. 날 모르겠느냐? 몹시 피곤하니 빨리 키를 내보라. 그러나 그런 여지는 통하지 않는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권을 꺼내 숙박계를 또박또박 적었지만 거기 적힌 자료가 나를 증명하지 못했다. 프런트에서 지급한 작은 카드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걸 방에 던져 놓고 나왔다. 철제 로봇처럼 생긴 직원 녀석은, 이틀날 아침, 회의를 거쳐 확인된 당신에게 열쇠를 줄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한다.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대진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안전불감, 실감하자

결국 나는 호텔 로비에 있는 소파에서 독일에서의 첫날밤을 보냈다. 너희들 잠으로 한심하다. 서비스 정신이 형편없다. 다시 이 호텔에 오나라. 밤새 소파에 쪼그려 자며 잠꼬대처럼 그렇게 끔찍했다.

엄격, 정확, 견고, 점검, 확인 또 확인. 이것이 독일인의 특성임을 안 것은 여러 차례 수업료를 낸 이후다. 객실 출입문은 감옥의 문만큼 튼튼하다. 독일어에는 허용 오차, 유통성, 설마, 이정도쯤이야, 대중대중, 남이 안 보는데 어째? 이런 말이 없는 듯하다.

머칠 전 롯데 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청년이 미사일처럼 허공으로 발사되어 석촌 호수에 빠져 숨졌다. 장장한 청춘이 순식간에 소멸되었다.

여기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연 재해도 마찬가지다.

불합이다. 얼었던 대지가 녹고 있다. 어디서 무엇이 터지길 기다리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엄하게 대비하자. 산불, 홍수가 기다리고 있다.

하늘 땀만 해선 안 된다. 대형 교통사고도 끔세 감추고 대기 중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꺼림칙한 것은 반드시 불행과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일 간 묵으면서 호텔 보이 녀석에게 당한 첫날밤의 수모를 곁을 웅출한 궁리를 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를 발견했다. 로비 화장실에 가니 까치발을 해야 소변을 볼 수 정도로 변기가 높다.

큰 독일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지배인을 데리고 와서 시연을 해가며 따졌다. 그러자 지배인 왈, "당장 높이에 맞게 고치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배인은 "1주일의 시간을 달라"며 "대신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호텔에 묵는 여행객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공사를 시작했다.

그 때를 회억하니, 목적처럼 굳은 자세로 같은 대답만 해대던 직원 녀석이 그림다. 자기 임무에 투철한 정신이 존경스럽다. 지금쯤 동양인 체형에 맞게 화장실 공사는 끝났겠지.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투구한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유비무환, 오래된 격언을 다시 새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대학생은 이 사회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예비 지도자들이다. 따라서 어떤 종교들은 이들 대학생들에 대한 선교의지를 전쟁에 임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캠퍼스선교 120년을 맞아 올해를 선교 재부흥 원년으로 삼고 오는 6월에는 한달간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선교대회를 열어 사실상 한국의 대학캠퍼스를 모두 미션스쿨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지금 우리 불교계의 대학생 포교전략은 어떠한가. 45년이라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학생불자들의 연합체인 대불련의 이름으로 겨우 대학생포교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식의 위안을 삼고 있는 정도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불련 각 지회의 회원은 대략 20~30명 정도다. 그나마 등록만 해놓고 활동하지 않는 회원이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대학생 포교전략 제대로 짜야

대학교 불교학생회들은 나름대로 새내기 가입과 동아리 활성화 방안 등 지구적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컨대 1:1 가두 포교, 현수막 포스터 홍보, 각종 친목도모 또는 문화행사 계획 등이 그 골자다.

그러나 이같은 포교전략은 기독교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대학생 포교,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두 가지만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성추행 국회의원의 이름보다 개그프로의 유행어, 진리 종교 자아발견보다 취업 이성교제 술이 더 큰 관심사인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나 사회문화적 특성을 잘 분석하여 새내기들의 불교공부하기 기인과 기존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유도할 보다 입맛 당기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각 대학 불교학생회와 인근사찰의 결연 및 사찰체험, 감성적 중독증에 빠져 아집과 사회의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타종교와 불교의 차별성 부각 등을 통해 불교에서 자신과 인류사회의 밝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종단, 사찰, 부모, 동문들의 헌신적인 관심과 후원이 시급하다.

■ 도수영(법도당 회주)



이렇게 들었다 공명선거

고관(高官)을 탄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바른 행위를 뒤야 한다. 무릇 육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라. <발보리심론>

5·31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공명선거 대책과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혼란 조짐이 보인다. 여야의 관심은 정치적 비중과 파장이 큰 광역단체장 선거에 쏠려 있고, 지방권력 교체에 외치는 여당의 '후보 징발' 무리수가 그것. 이뿐만이 아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는가 하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중간모집책까지 두고 당원을 끌어 모으며 금품수수할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현역 자치단체장이 선심행정을 벌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운동을 벌인 선거사범 242명을 적발, 이중 16명을 구속하고 94명을 기소했다. 규모로는 벌써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2.6배가 늘어나 당내 경선, 정당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당비 대납사건 등이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뿌뿌리 민주주의가 관권, 금권에 오염되면 나라의 기본이 흔들린다.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앙당의 부당한 선거개입과 후보 선출과정의 비리를 철저히 응징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 공명선거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 등 내부 고발자와 신고자 보호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노병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마에불상이 경찰서 간 꺼림

마에불상을 놓고 사찰과 지역주민의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서 기사를 훑어보다가 '인간들 때문에...경찰서 끌려간 부처'라는 기사 제목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유심히 읽어왔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대구에서 있었다. 불상은 아산시 배미동에 있었던 것인데 땅주인이 대구 성불사 스님에게 이전해서 보냈다고 한다. 문제는 그 이후 배미동 주민들이 시름시름 앓거나 죽거나 했다. 배미동 주민들은 마을 수호신이었던 마에불상이 없어져서 액운이 닦혔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성불사에 모셔져 있던 마에불상을 밖으로 가져가려 했고 결국 주민 2명은 특수경찰도 협의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의 마에불상은 대구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실려와있는 상황이다.

이유가 어찌됐건 이해는 가지지만 마에불도 불상이고 사찰에 안치된 만큼 예불의 대상이다. 배미동 주민들의 사정이 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윤과정도 거치지 않고 도둑질하듯 강탈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불사에서도 배미동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자비정신으로 중생을 구제하셨다.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할 불자들이 마에불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중생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강진원(서울 등촌동)

현각 스님 기사 인상 깊어

지난 568호 불자들면에 실린 현각 스님의 인터뷰 기사 '나의 전생은 항일독립군이었습니다'를 매우 재미있게 읽었다.

실령 불자라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 중에서 '전생'이나 '윤회'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 어렵듯이 윤회를 인정하는 불자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전생과의 강한 연결고리를 느끼거나 체험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현각 스님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꺼내며 우리나라와의 강한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윤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더불어 한 외국인 스님조차 애국가를 그토록 절절하게 받아들이는데, 과연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얼마나 3·1절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나 생각하며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동안 애국가를 들으며 우리나라를 지금에 있게한 순국선열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가? 올해 3·1절에는 아들에게 3·1절의

의미를 이야기해주며 함께 태극기를 게양해야겠다.

문세현(충남 공주시)

교도소에도 노래방 기기 보급했으면

속세에서 지은 죄가 많아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재소자이다. 교도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범죄시간에는 불교 성가대에서 활동하며 음성공양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찬불가 반주를 할 수 있는 피아노나 음반이 마땅치 않아 매끄러운 범죄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중 현대불교신문과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서 찬불가 노래방 기기를 군법당에 보급했다는 기사를 읽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 교도소에도 저런 찬불가 노래방 기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굳이 피아노가 없더라도 반주 기기가 있다면 다양한 찬불가 음성공양을 통해 보다 원활한 범죄 진행은 물론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들려줄텐데 말이다.

이곳 교도소에는 다양한 종류의 죄를 짓고 복역하는 의롭고 힘들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들이 찬불가를 마음껏 부르면서 부처님의 자비법을 가슴에 새기면서 생활할 수 있다면 많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광주교도소 재소자

'연대' 민평

심민섭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 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서는 수행의 반역자가, 불자님들께서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안내

- 구성: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상하권 총 80,000원(날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및문의

- 구성: 전화 02)2004-8211, 2 / 팩스 02)737-0697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도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50,000원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